

## 첨단 정보사회의 지적 토대 마련해

〈한길그레이트북스〉 50권 돌파

한길사의 〈한길그레이트북스〉 시리즈가 출간 5년 만에 50권을 돌파했다.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을 집대성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1996년 1월 제1차분으로 A. N. 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 엘리야데의 《중교형태론》, 라다크리슈난의 《인도철학사 I》 등을 출간하면서 시작한 〈한길그레이트북스〉는 최근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 I·II》와 마르틴 하이데거의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를 출간하면서 시리즈 51권째에 이르렀다.

이 시리즈는 기존의 고전과는 달리 편집·디자인 과정에서 일관된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동·서양 고전을 망라하되 문학분야는 제외하고, 20세기 말에 발표된 명저들도 포함시키며, 해당 사상가나 이론을 논문주제로 삼아 박사학위를 획득한 30~40대의 한글세대 전문학자를 주축으로 번역을 맡기고, 원서를 토대로 상세한 해설과 치밀한 고증, 역사주 등을 곁들인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고전 번역물과 차별화되는 것도 이런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을 번역·출간하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다. 번역하는 데만 최소한 3년이 소요됐고, 어떤 책은 장장 7년여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원전이 제대로 번역·출간된 적이 없음에도 2차, 3차 번역·저작물만 늘어나는 출판현실은 우리 인문학의 기형적 구조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지표다. 지적 불균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가 7천6백여부가 팔린 반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I·II》, 이익의 《성호사설》 등 한국고전의 판매는 신통치 않은 것은 이를 반증하는 예라 하겠다.

'지식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세계화라는 명목 아래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은 대학사회에서마저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길그레이트북스〉가 인문학에 기여한 공로는 자못 크다. 첨단정보사회의 토대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로 고전이고 인문학이라는 것을 이 시리즈는 깨닫게 해준다. -김정근 기자

## 작가의 독특한 시각으로 새로운 역사상 제시해

강신재의 《명성황후(전3권)》, 채길순의 《동트는 산맥(전7권)》 출간

우리 역사의 숨겨진 사실을 작가의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대하역사소설 두종이 나란히 출간됐다. 강신재의 《명성황후(전3권)》(소담)와 채길순의 《동트는 산맥(전7권)》(신인간사)이 바로 그것.

강신재의 《명성황후》는 우리나라 최초의 황후인 명성황후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가난하게 살아가던 촌가의 소녀 민자영이 대원군에 의해 고종의 왕비가 되고 45세 때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기까지의 과정이 당대 정치사와 맞물리며 숨가쁘게 펼쳐진다.

제1권에서는 민자영이 대궐에 들어가 왕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제2권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세계 열강 사이에서 정치를 펴는 명성황후의 정치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제3권에서는 '여우사냥'이라는 암호 아래 펼쳐진 명성황후 시해과정을 그렸다. 1994년 태일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을 지은이가 직접 교정을 보고 시대상황에 맞게 어휘를 고쳐 다시 펴냈다. 지은이는 지난 5월 타계했다.

채길순의 《동트는 산맥》은 동학혁명을 다룬 소설이다. 전라도를 배경으로 한 기존의 소설과는 달리 충청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는 점이 이채롭다. 동학혁명의 주역인 동학 교단과 동학도인들이 농민들과 구체적으로 어

떻게 결합했으며, 동학교단의 조직이 민중들의 삶 속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생생하게 그려보인다.

이 소설은 주인공 '갑놈'과 갑놈의 아버지 정구근, 그들의 정신적 지주 '계암', 장장교·봉근·취눈과 같은 민중들, 그리고 손병희, 손천민, 김계남, 손화중, 김용희 등 실제 인물들이 동학과 어떻게 접하고 혁명 속으로 돌입해갔는지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준다.

1983년부터 《충청일보》에 3년간 연재된 이 소설은 1991년 《소설 동학》(하늘땅)이라는 제목으로 5권으로 출간된 바 있는데, 이번에 7권으로 재출간·완간됐다. - 최갑수 기자



소담출판사/A5신/304면 내외/각 7000원



신인간사/A5신/298면 내외/각 8000원